



공동체 소식



부활 제2주일

하느님, 주일마다 파스카 잔치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가 형제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아 뵈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함께 한 사제들을 위해
(박호철 베네딕도, 이승용 마태오,
신성국 노엘,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님)

☞ 교황님 기도 지향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으로 위안을 받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지냅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구역 모임

- 1구역 : 4/18(토) 오후 7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 2구역 : 4/17(금) 오후 7:30, 홍순익 마르티노 가정
- 3구역 : 4/18(토) 오후 7시, 김병철 베네딕도 가정

청장년 남성 신자 피정

- 일시 : 5/15(금) ~16(토) 1박2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 ☞ 4/26(일)까지 참가비 30불과 함께 선교분과장(정수한 베드로)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4/25(토) 오후 5:30
- 장소 : KU 로렌스 성당

기타

- 오늘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 주신 최인각 바오로 신부님(수원가톨릭대 교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오늘 중심미사 후,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합니다.
- 오늘 중심미사 후, 청년모임(Unitas)이 회관에서 있습니다.
- 캔사스 대교구에서 나누어 드린 Rice Bowl을 회수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액을 체크로 봉헌해 주시면 송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5	512	163/180	12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문호진 안토니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이원준 요한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수한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주	최은미 아네스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손정화, 한춘희, 유경애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4/2	122명	703불	2030불
이우영, 정석원, 이혁구, 이우석, 김태중(총 5세대)			

☞ 기타 : 성삼일(총 931불), 라이스볼(815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날인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현존하시며 평화를 선포하시고 선물도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자비를 청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의 자비를 본받아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림 묵상

의심에 찬 토마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토마스의 의심에 찬 눈동자 속에 우리의 모습이 겹칩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곧잘 무너지고 의심하곤 합니다. 의심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굳게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바탕이요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4,32-35

< 한 마음 한 뜻 >

화 답 송 : 

주 님 게 감 - 사 하 여 라 그 줄 으 신 분 - 을 - -



영 원 도 하 시 어 - 라 그 사 - 랑 이 - 여 -

-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아하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나를 밀고 떼밀어 쓰러뜨리려 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 주님께서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
-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

제 2 독서 : 요한 1서<5,1-6>

<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 요한 20,19-31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세 마

“세월호 참사 1년, 한국교회의 1년”



그리스도인의 왕직

지난 1년은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동행한 시간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몸짓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직은 사고 첫날부터 빛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팽목항 등지에 천주교 부스를 마련한 광주대교구는 물론 전국 각 교구는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함께했다.

가장 많은 실종·희생자가 속한 수원교구는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매 미사 때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고, 안산 와동 일치의 모후 성당에서는 매일 저녁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묵주기도와 미사를 봉헌했다. 또 안산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내에 천주교 부스를 마련, 4월 29일부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예언직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고비 고비마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무엇이 복음인지 드러내는 행렬이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 노력이 질곡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섰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7일 각 교구 정평위에 공문을 발송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회 차원의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의 사제직

전국 각 교구는 대부분 참사 1주기인 4월 16일을 전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추모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기억의 행렬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가족들과 정부 합의로 세월호 실종자 시신 발굴이 중단되고 천주교 부스가 철수된 직후,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총 304일간 이어질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미사 봉헌에 나섰다. 주일을 제외하고 304일 동안 이어지는 기간 중 각 수도회 공동체는 매일 한 명씩 정해진 희생자를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수도회가 돌아가며 광화문 광장 미사를 집전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 12,15) 세월호와 함께한 지난 1년, 우는 이들과 기꺼이 함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신자들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자식 팔아 한 몫 챙기는 몹쓸 부모’로 매도하며, 정치적 논쟁에 이용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적폐(積弊) 청산’을 통한 ‘국가 대개조’를 부르짖어온 외침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등 응어리진 삶을 이어가고 있다.

올바른 기억만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에 다름 아니다. 박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는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진실마저도 침몰시켜서는 안 된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반드시 빛이 승리한다는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다”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올바른 기억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징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징표에서 주님의 뜻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 가톨릭신문, 4/11자 보도 -



<차쿠의 아침>을 읽고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



진리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법륜스님은 쉬 운말로 종교란 유한한(미약한)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힘있는 자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얻어 내면에서 풀고자 하는 것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영세를 받은 나는 모태가 아님을 변명 삼아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을 원하며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하는 데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확신에 차서 하신 말씀들 (“천주교를 하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한한 육체의 생명으로 무한한 영혼의 생명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죄란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임자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만 사는 이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한번에 순교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난을 드렸고 다음은 정결, 마지막은 순명, 그래도 더 사랑하고 싶는데 남은 거 생명 밖에 없어서, 그것마저 드린 것입니다, 생명밖에 남지 않은 생명이라야 받으실 것입니다.”) 에서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의문이 들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 교리, 신앙, 사랑, 공동체, 희생, 봉사, 친교..라는 것에 휘둘러 부끄럽게도 정말 중요한 하느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본을 체쳐두고 해답만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말로만 했던 것이었다. 내가 근원인 세상에 맞춰야 되는 내 중심의 세상이었지 하느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오는 범요한은 우리와 흡사했다. 다혈질에다 유혹에 약하고 변덕스러워 언제나 분심이 들 수 있는 약한 나와 내 이웃의 모습이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분들과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있음(?) 이 결정적 순간에 그를 “제대로 해보게”끔 한 것 같았다. 누구는 이래서 안돼, 누구는 저래서 안돼, 인간은 변하지 않아..등으로 경계하고 그 약점을 선입견으로 삼아 선을 그어 단정지었던 것 같다. 약점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약함으로 보아주고 인정하고 보완해줌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최초로 돋보기를 끼고 읽은 책이었다. 이제 내가 지긋한 중년인 것이다. 순교할 마음도 성소를 둘 마음(자격도 안되지만) 도 없는 나에게 그래도 하느님의 세상에서 자잘하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자기 낮춤, 사소한 양보, 먼저 건네는 인사, 화해, 섭섭해도 넘어가 주기, 재미 없어도 함께해 주기, 일상의 너저분한 것들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 등이 일상의 순교라는 것이었다.

사순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약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할 때 잠시 멈추고 그 이유를 집요하게 살펴보았더니, 문제는 정말 다 나에게 있었습니다. 올해 사순시기도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기쁘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